

<서면답변서>

○ 박공진 위원, 하수진 위원(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7호 교육위원회 2004. 12. 1)

(질 의)

- 박공진의원님께서는 급식학교에 대한 위생점검을 철저히 함에도 위탁급식학교에서 식중독사고발생비율이 높은데 이에 대한 교육청의 특단의 대책은 무엇이며,
 - 식중독사고 발생학교 22개교 중 17개교에 대하여 관계자에 대한 문책을 하지 않고 ‘보건 및 급식위생관리 철저’의 시정조치만 하였는데, 식중독사고가 발생한 학교에 대하여 관계자에게 문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 식중독사고 발생원인이 22건중 10건이 원인불분명으로 되어 있는데 원인규명이 되지 않으면 향후 계속 똑같은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하수진의원님께서도 같은 질의를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 변)

- 먼저 올해 급식학교에서 식중독사고가 많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우리교육청에서는 위탁급식학교에 대한 지도감독강화를 위해 2003년 3월에 각급 학교에 위탁급식관리요령을 시달하였으며, 위탁급식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정기점검은 물론,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유관기관과 특별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위생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 위탁급식학교 322교중 직영급식을 희망하는 152개교(2004년 37교, 2005년 30교, 2006년 44교, 2007년 41교)에 대하여 급식종사자 인건비 및 시설개선비를 지원하여 점차적으로 직영급식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식중독 사고 발생시 관계자문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교육청에서는 2004년도 5월에 ‘학교급식비리 및 위생사고 발생시 행정처분기준’을 지역교육청

및 일선학교에 시달하였습니다. 따라서 식중독 사고 발생시에는 이에 따라 관계자에 대하여 문책을 하고 있습니다.

- 올해 우리 도내 학교급식 식중독사고는 총 17건으로 이중 11건은 원인균이 검출되었고 6건은 원인균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 원인균이 검출된 10개 학교에 대하여는 학교장 및 영양사, 보건교사 등에 경고 또는 주의조치 하였으며 원인균이 검출되지 않은 6개교와 원인규명이 불분명한 1교에 대하여는 시정조치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원인균이 검출되어도 정확한 오염경로 등이 파악되지 않아 관계자에 대하여 문책을 강화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그리고 학교급식 위생사고 발생시 역학조사는 식품위생법에 의거 방역당국(보건소장)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원인이 규명되지 않는 이유는 일선 시·군립구 보건소의 과학적인 검사장비와 기술수준에 따라서 원인균 검출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교육청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식약청, 시·도에 식중독 발생시 철저한 역학조사를 통해 원인균 검출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 박현옥 위원(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7호 교육위원회 2004. 12. 1)

(질 의)

- 위원님께서 초등교육과에서 운영하는 교실수업개선 웹DB와 제7차 교육과정 웹DB 대하여 목적은 좋은데 시스템상의 문제로 인하여 과다 접속시 다운현상이 발생하고 또 일선 교사들이 웹DB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회원관리인증을 통한 폐쇄형규모로 되어 있어 교사들의 활용도가 떨어지고 관리 인력도 없이 웹DB가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며 교실수업 웹DB와 제7차 교육과정 웹DB가 독자적인 데이터베이스로 되어 있어 전국 공유 KEM 2.0과 연결되지 않아 교육정보연구원 교수·학습지원센터와 에듀넷 등의 자료 공유가 어려워 일선 교육현장에서 기피하고 있는 바 교실수업개선 웹DB와 제7차 교육과정 웹DB의 기능과 가치를 증대하고 운영 효율성을 위하여 두 시스템을 경기도 교육정보연구원 웹DB로 통합시켜 관리 운영할 의향이 없는지와 통합이 어렵다면 교실수업개선 웹DB의 운영 방법 개선과 전문인력 확보에 대하여 질의 하셨습니다.

(답 변)

- 교실수업개선 웹DB는 단위차시별 교·수학습과정안과 교수·학습자료가 세트화되어 있고, 학습안내, 동기유발, 학습활동, 학습정리, 심화학습 등의 학습요소별 멀티미디어 자료들을 웹상에서 재구성·활용하도록 되어 있어 교사들이 교재 연구 부담을 줄이면서도 웹상에서의 교수·학습자료 재구성에 의하여 창의적인 교수·학습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1일 평균 적게는 1천명에서 많게는 2천명 정도의 교원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교원들의 활용 요구 증대, 동시 접속자수 증가시에는 다운현상이 발생하여 '05년도에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통하여 이를 해결하도록 할 예정으로 있으며, 교실수업개선 웹DB는 교사들이 활용하는 자료로 공개시 학생들의 학습 흥미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어 회원관리 인증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웹DB 관리를 위하여서는 전문유지보수업체와의 계약에 의한 시스템 관리 및 웹DB지원단을 조직하여 시스템 및 자료 관리 및 활용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독자적인 데이터 베이스로 되어 있는 교실수업개선 웹DB와 제7차 교육과정 웹DB의 전국공유 KEM 2.0과의 연결하여 교육정보연구원의 웹DB로 통합·운영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교실수업개선 웹DB는 시스템 구축의 특성상 현재 정보연구원의 웹DB가 웹상에서의 자료 재구성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어 당장 통합 운영은 어려우나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 자료 개발 시스템 진척 정도에 따라 통합·운영하는 문제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한편 제7차 교육과정 웹DB는 '05년도에 KEM 2.0과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 의)

- 위원님께서는 2002년 3월 2일자로 초등신규임용 후보자를 배정한 이유와 이들 중 2004년 3월 1일자로 관내외로 전보된 인원수를 물으셨고 이들을 발령한 법적 근거 및 인사위원회 개최 여부와 그 조치결과를 질의하셨습니다.

(답 변)

- 2002. 3. 2일자로 초등신규 교사를 배정한 이유 및 인원은 2002년 3월 1자로 배정된 신규교사 472명은 2002년 2월 15일 이전의 학급수에 의해 2002년 2월 17일에 1차 신규교사를 발령하였고 그 이후 지역교육청에서 학급수 증가로 인한 교

사 증원 요구가 있어 2002년 3월 2일자에 2차로 신규교사를 배정하게 되었으며 배정된 인원은 95명이었습니다.

- 이들을 2004년 3월 1일자로 전보 내신 자격을 준 근거와 인사위원회 개최여부 및 조치결과는 교사의 전보는 동일교 2년이상 5년 범위 내에서 실시하고 있어, 2002. 3. 2일 발령자는 만 하루가 부족하여 내신자격이 주어지지 않았으나 3월 1일은 공휴일이라 3월 1일자 발령자와 실제 근무기간은 같다고 15명이 민원을 제기한바 있어, 2004년 1월.13(화)에 경기도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경기도 교사 전보규정 제13조제6항의 전보년수 산정시 15일 이상은 1월로 하고 15일 미만은 근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근거하여 이들에게도 전보내신을 할 수 있는 자격 부여가 가능하다는 해석으로 3월 2일 이후 3월 16일자 배정자에게도 전보내신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였습니다.